

중도 채용 10년 만에 증가... DX 인재 수준 향상, 소니 그룹은 20% 증가 니혼게이지아이신문사 조사 결과, 2021년도 16% 증가

2021.4.19. 일본경제신문

기업들의 중도 채용 의욕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이 18일 정리한 채용계획 조사(최종 집계)에서는 주요 기업의 2021년도 중도 채용이 2020년도 대비 16% 늘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하에서도 일손 부족의 해소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인재의 수준 향상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소니 그룹 등 제조업에서 즉시 전력을 채용하는 움직임이 확대한다.

22년 봄의 대졸 신입 채용 계획은, 10만 4184명으로 21년 봄 실적에 비해 4.4% 증가한다. 고졸 등을 포함한 신규 졸업자의 총 합계는 3% 증가한 13만 4542명. 중도 채용의 5만 2782명을 더하면 18만 명이 넘는다. 전체에서 중도 비율은 28.2%로 2019년도의 사상 최고(28.3%)에 육박한다.

중도 채용은 리먼·쇼크 후인 09년도에 29.6% 줄어, 11년도에 단카이 세대(전후 베이비 붐 세대)의 대량 퇴직에 대비하는 형태로 16.2% 증가했다. 그 후도 전년을 웃돌아, 신형 코로나 하의 20년도도 9.9% 증가했다.

배경에는 DX 인재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 경제산업성은 2030년에 최대 79만명의 IT(정보기술) 인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업은 즉시전력의 전문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강하다. 대졸 신입(4.4% 증가)보다도 중도채용의 증가율이 크다.

중도채용 증가가 두드러진 업종은 제조업으로 1만 3415명으로 25.5% 늘고, 증가율은 23.9%포인트 상승한다. 분야별로는 전기(49% 증가의 6565명)가 증가한다.

소니 그룹은 중도채용을 300명으로 20% 늘린다.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사용하는 반도체 화상 센서의 인재를 확보한다. 한국 삼성전자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기자동차(EV)를 만드는 등 센서의 기술력을 연마하고 있다. NEC는 25% 증가한 500명을 전망한다. NTT와 차세대 통신망으로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 AI나 시큐리티의 즉전력을 채용한다.

자동차 부품(27.3% 증가)과 기계(18.3% 증가)도 증가한다. 자동차부품 업체인 아이신은 40명 이상으로 2배로 늘린다. 인터넷과 연결되는 자동차 등 「CASE」 대응으로, 「자동차 전동화의 전문 지식을 가지는 즉전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야마하 발동기는 이륜차의 차량 데이터를 분석해 고장 경고를 내는 디지털 사업등을 강화하고 있어, 3.2배의 100명을 전망한다.

비제조업에서는 기업용의 기술자 파견 부분에서도 중도채용을 늘린다. UT그룹은 기업용 기술자 파견의 중도 채용을 56% 증가한 1만 2000명으로 늘릴 전망이다. 「반도체와 관련된 인재 수요가 왕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끝.